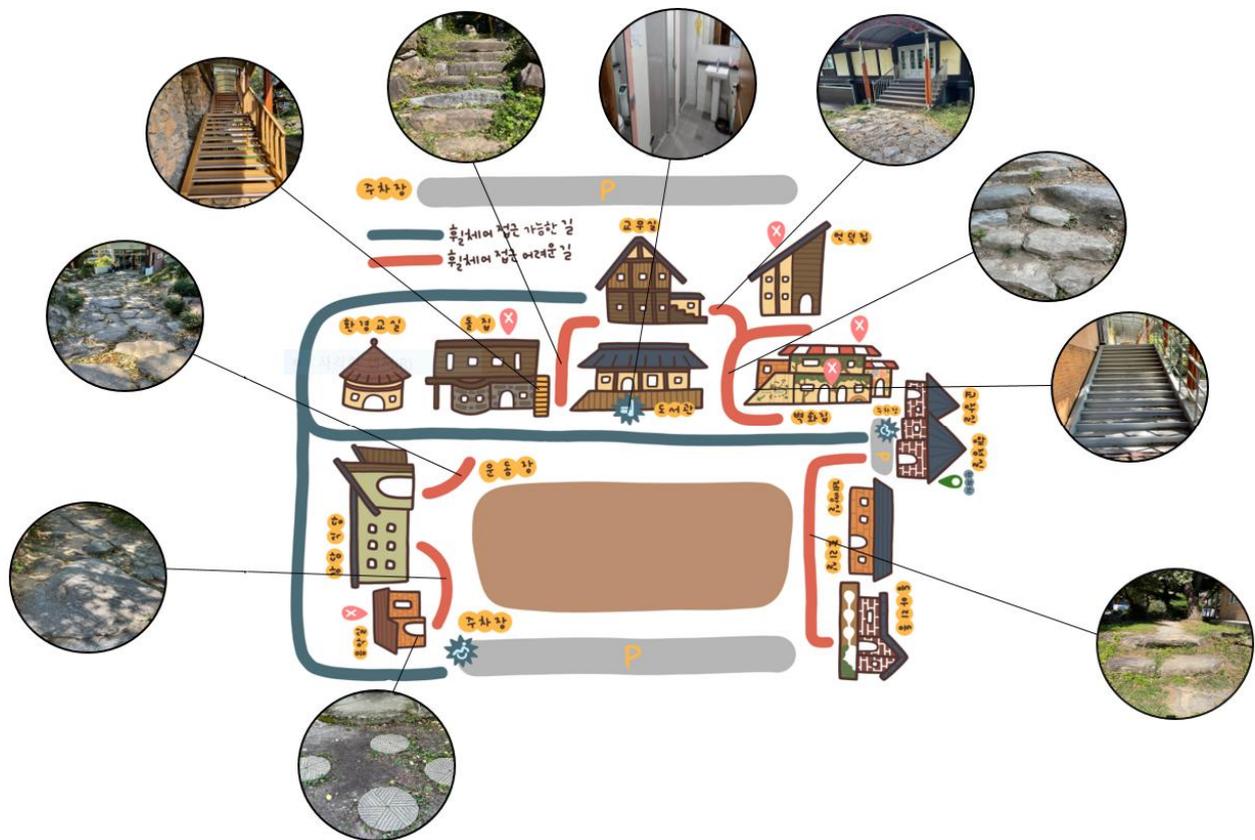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단체명	간디고등학교
------------	---------------

1. 이동약자 접근성과 학교 위험 요소를 담은 안전 지도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과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개선 과정

1.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현재진행형 동아리

“ … 차근차근 움직인다면 최종 목표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점차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 시작을 안전한 학교 공모전으로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는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다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

(2021 제 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中)

1년 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 를 제목으로 참여한 제『 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덕분에 학교 안전을 고민하는 좋은 시작이 되었다. 약 한 달간의 단기 동아리였지만, 활동을 거듭할수록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계속해서 학교 안전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존재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게 ‘모두가 안전한 학교’ 라는 장기 목표를 둔 동아리를 개설했다. 2021년 8월에 시작된 안전 동아리 ‘리모를 찾아서’ 는 현재진행형이다.

년	제목	중점과제	활동 내용
2021	모두를 위한 안전한 학교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화장실	강당 설치를 주제로 식구총회 안건 1차 발의. 100명중 95명 찬성으로 가결.
		소방안전	- 소화기 교체 및 추가 설치. - 소화기 배치도 제작. - 소화기 사용 방법 및 화재 시 대피 방법 알림.
		물리적 위험요소	대상으로 22가지 위험요소 조사 후 개선 방안 모색, 9가지 반영.
2022	모두가 안전한 유니버설 디자인 학교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화장실	- 전교생 대상 초청 강의, 자유토크, 도안 만들기 활동. - 도서관 설치를 주제로 식구총회 안건 2차 발의. 102명중 73명 찬성으로 가결. - 준공식 ‘물내림제’ 행사.
		안전·약자 문제 가시화 프로젝트	-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동약자 접근성 지도 제작. - 온라인 안전 맵핑.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개선 과정

2.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학교가 필요하다.

동아리의 최종 목표인 모두가 안전한 학교의 의미는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과 맞닿아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범용 디자인’ 이라고도 불리는 UD는 배리어프리(BF)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이용자들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 보편적 디자인을 뜻한다.

UD라는 용어는 1973년, 휠체어를 이용했던 미국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가 만들었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7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법과 조례, 무장애 건물과 공원 등 법과 관련 지침을 망라한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적용했다. 2020년 9월에는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 2020~2024’를 통해 2021년부터 신축 및 개·보수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UD를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네이버. 유니버설 디자인 시사상식사전)

이처럼 최근 한국 공공시설은 UD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는 학교안전이 UD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누군가의 교육장, 직장, 산책길 등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은 ‘이용자’에 초점을 뒤편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이용자에게 안전하다고 해서 학교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답은 ‘NO’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모두가 ‘함께’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안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개선 방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이 될 수 있다.

UD를 반영하기 위해 우선 필요 것은 모두의 의견이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반영하는 과정에 최대한 학교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개선 과정

3.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화장실

이전 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 화장실은 모두가 안전해야하는 공간이다.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권리로써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배제되어 사용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불안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모두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음을 의미한다. 그 존중은 안전의 첫 단계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에 UD를 접목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화장실 (이하 모장실)’ 설치를 목표로 2021년부터 약 1년간 꾸준히 활동했다. 그 결과 2022년 8월에 모장실이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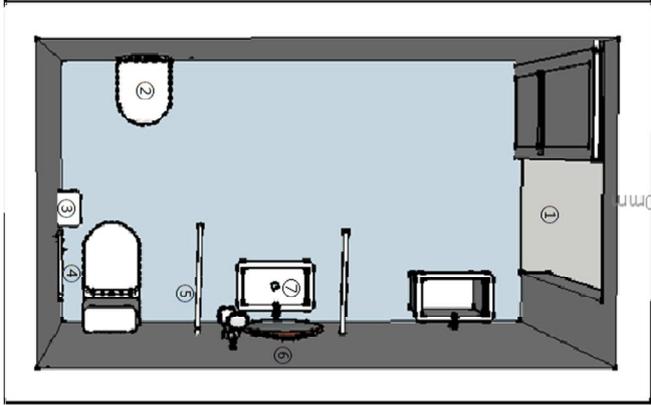
※ 모장실은 1인 형태의 공간으로 장애유무, 신체조건, 나이 등과 상관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다.

- 1차 모장실 설치 안전 발의

우선 모장실 설치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했다. 학교의 최고 결정기구이자 가장 큰 자치 기구인 ‘식구총회’에 결의안을 올려 가결되었다. 1차 안전 발의 당시에는 강당 장애인 화장실에 모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에 존재하던 장애인 화장실에 물품을 추가하는 형식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일 것이라 기대하였고, 건물에 식당이 위치하여 학생들의 사용률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 · 개선 과정



▲ 1차 안전 발의 당시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도면



▲ 식구총회 1차 안전 결의 모습

- 전문가 초청 강의, 인터뷰

학교 구성원들에게 모장실의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님을 직접 초청 강의를 하였다.



- 2차 안전 발의

설치 준비 과정에서 예정 된 강당 장애인 화장실의 한계를 발견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서관 화장실로 장소를 변경하는 안전을 발의하였다. 추가로 약 1시간 동안 조별 토의를 통해 ‘안전한 공간은 무엇일까?’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강당 장애인 화장실 단점	도서관 화장실 장점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좁은 면적	휠체어 이용 가능한 면적
기존의 이분법적인 화장실 사이에 위치해 오히려 성별을 구분지음	화장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 됨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강당 입구의 돌	휠체어 진입로 공사 가능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겹쳐 활발한 사용 기대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개선 과정



▲ 식구총회 2차 안전 결의 모습

- 자유 토크 모임

안전 진행 후, 모장실 설치와 관련해 보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토크 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장실 설치에 있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과정이었다.

- 학년 별 모장실 도안 만들기 활동

모장실 내에 설치될 구성용품을 구성원들이 직접 배치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모장실에 들어가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고, 사용자로서 필요하거나 불편한 점을 인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화장실 기본 도안과 각 물품 그림(안전벨, 기저귀 교환대, L자 손잡이, 인공 향문 세척기 등)을 준비하여, 자유롭게 배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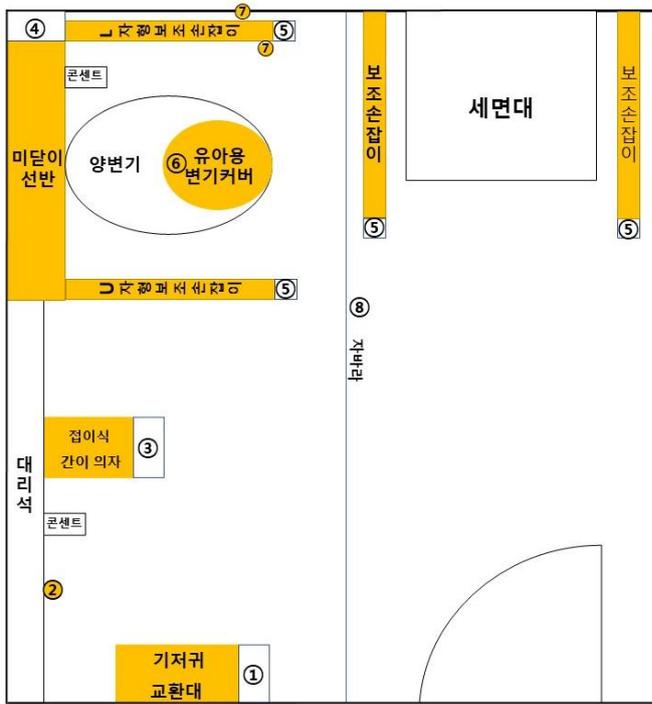
- 모장실 설치 공사

구성원이 활동한 물품 배치 도안을 토대로 모장실 도안을 완성하였다. 기존의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을 각각 1인실 모장실로 만들고, 면적이 큰 여자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기존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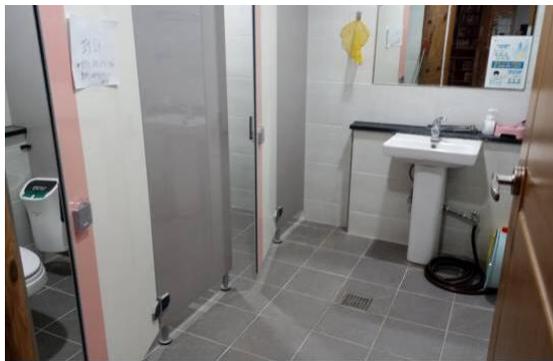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 · 개선 과정

-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화장실 1



①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를 교환하거나 보호자가 용변 불시에 유아를 벨트로 고정해 보호할 수 있음.
②	다용도 샤워기	배설물이 흐르거나 생리가 새는 경우에 대처하는 시설. 기저귀 교환에도 용이함.
③	접이식의자	성인용 기저귀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
④	미닫이 선반	물건을 올려두거나 생리대, 휴지, 이외 용품들을 비치해둘 수 있는 시설. 누구나 작은 힘으로 열기 쉽도록 미닫이 형태로 구입함.
⑤	보조 손잡이	보행이 힘든 사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⑥	유아용 변기커버	성인중심적 변기의 대안인 유아 이용 가능한 변기커버.
⑦	응급 비상벨	응급 상황 시 도움 요청이 가능한 시설. 사서실과 연결 되어 있음.
⑧	자바라	휠체어 이용자의 보행을 막는 칸막이 대신 넓은 자바라를 이용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함.

▲ 모두를 위한 화장실 최종 도면 및 물품설명



▲ 공사 전 도서관 여자 화장실



▲ 공사 이후 바뀐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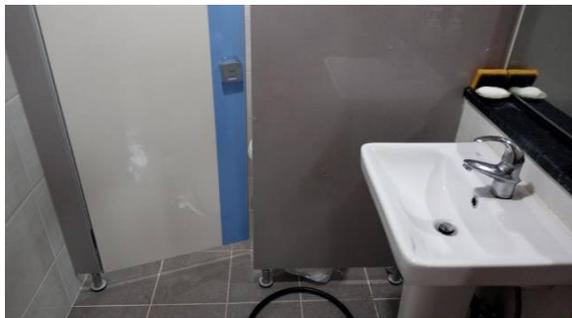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 · 개선 과정

-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화장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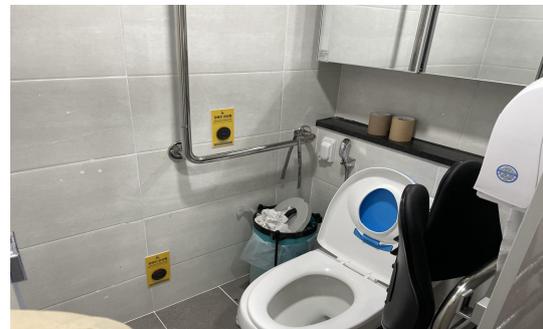
번호	물품	용도
①	다용도 샤워기	직접 용변을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 휠체어 이용자,
②	전신거울	키가 작은 사람 / 큰 사람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③	등받이	균형잡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 모두를 위한 화장실 최종 도면 및 물품설명



▲ 공사 전 도서관 남자 화장실



▲ 공사 이후 바뀐 모두를 위한 화장실

- 준공식 ‘물내림제’

모장실 준공을 축하하며 물내림제를 진행하였다. 구성원들의 축하 공연과 더불어 앞으로 모장실을 사용하며 지켜야 할 약속을 나누었다. 또한 모장실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퀴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준공식 ‘물내림제’ 단체사진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개선 과정

4. 안전·약자 문제 가시화 및 공동체 인권의식 향상 프로젝트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다면, 비장애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다.” 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이 있다. 모장실 준공이후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 전체가 ‘모두가 안전한’ 의미에 맞게 변화해야한다고 느꼈다. 특히 간디고등학교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자연 그대로의 돌과 나무가 특징이다. 비포장 도보 때문에 평소 비장애인 학생도 많이 다친다.

이동약자는 더욱 화장실 이용과 학교의 이동에 안전한 접근이 어렵다. 2021년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였다. 학교에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강사님이 방문하셨으나 위험한 진입로와 높은 턱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다. 안전은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방문자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태껏 학교의 공간과 시스템은 구성원을 ‘비장애인’으로 한정지어 왔다는 점도 문제였다. 공부를 하는 학생과 노동하는 교사는 나이와 신체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전·약자 문제 가시화 및 공동체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두 가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결합해 간디학교의 안전지도를 제작하였다.

1) 이동약자 접근성 지도 제작

목적:1)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조사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

2) 학교 공간에 대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여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미리 안전에 대비.

3) 지도를 통해 약자들의 존재를 가시화.

4) 전교생 대상 프로젝트로 공동체 인권의식 향상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개선 과정

조사 방법: 동아리 외 참여자 11명과 함께 수동휠체어를 이용해 매일 한 시간씩 개선점과 위험 요소를 조사.

조사 내용: 1)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 개선할 점, 전체적인 피드백.
2) 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 어려운 길 확인.
3) 입구와 출구 사이 비장애인과 수동휠체어 이동시간 비교.

조사 결과: - 총 9개의 도보 중 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보는 3곳, 어려운 도보는 6곳.
- 학교 공간을 이동하는 데 평균 비장애인 5분, 수동휠체어 20분으로 4배에 달하는 차이 확인.

2) 온라인 안전맵핑

목적: 1) 학생들이 학교 안전과 위험 요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
2) 방문자, 신입생 등 교내·외 다양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조사 방법: 학교 구성원의 사용률이 높은 강당의 대자보 활용해 모든 구성원의 의견 수렴. 수렴한 내용 바탕으로 업로드.

조사 내용: 학교 구성원이 생각하는 학교의 위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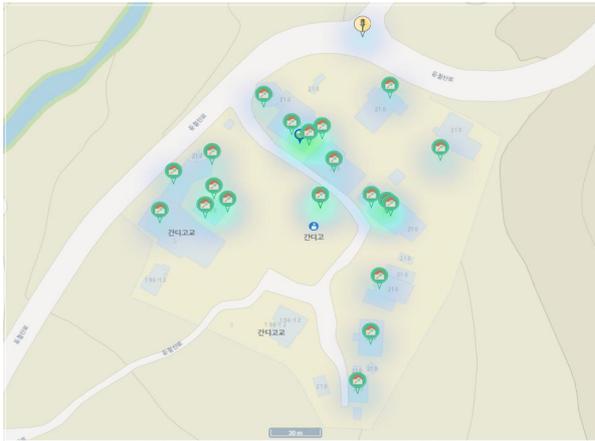
조사 결과: 총 25건 중 생활안전 22, 교통안전 2건, 보건안전 1건.
- (생활안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생활 안전은 대부분이 비포장 돌길, 가파른 계단 등, 비장애인인 학생들조차 보행안전에 위험 높음.
- (교통안전) 학교와 기숙사 모두 내리막길 급커브 구간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추돌 및 전복사고 등 각종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2.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한 개선 방안 모색 · 개선 과정

교통사고의 위험 높음.

- (보건안전) 산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각종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 있음.



▲ 학교 온라인 안전 맵핑



▲ 학교와 기숙사 안전 맵핑

강당.큰집) 화장실 휠체어 접근성
생활안전 > 시설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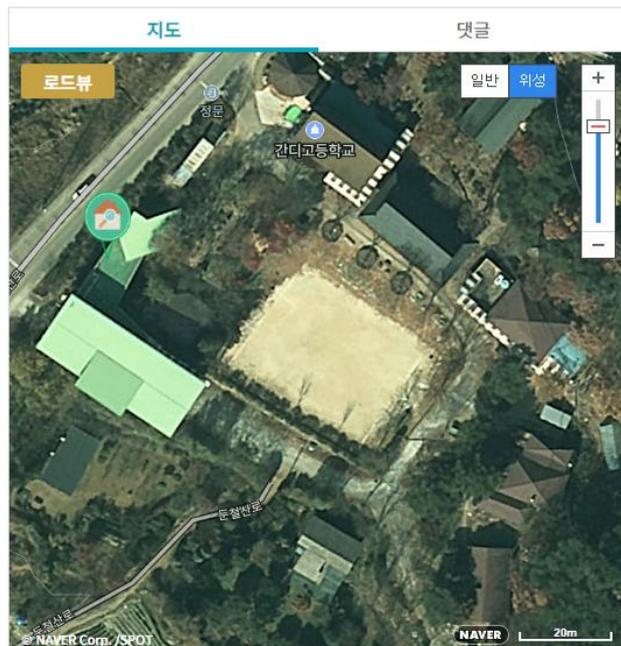
소속단체
간디고등학교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설명 및 의견
매우 협소한 공간 1.4 X 2.5
겨우 사용 가능함. 보조인 동반 필요
안전L,U모양 보호봉

파일 파일없음

♥ 0 🗑 0



▲ 온라인 안전 맵핑 위험요소 예시. 강당 휠체어 접근성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3. 활동 과정 및 앞으로의 방향성

1. 활동 일정

1)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화장실 설치

- 21.09.09. 1차 안건 발의
- 22.04.18. 전문가 초청 강의, 인터뷰
- 22.07.07. 2차 안건 발의
- 22.07.21. 자유 토크 모임
- 22.07.21. 학년 별 도안 만들기 활동
- 22.08.04. 공사 시작
- 22.08.26. 준공식 ‘물내림제’

2) 안전·약자 문제 가시화 및 공동체 인권의식 향상 프로젝트

① 이동약자 접근성 지도 제작

- 22. 06.17~ 06.27 휠체어 이용해 공간 개선점 조사

② 온라인 안전맵핑

- 22.06.30. 대자보 의견 수렴
- 22.07.14. 위험요소 조사
- 22.07.19. 온라인 안전맵핑 제작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3. 활동 과정 및 앞으로의 방향성

2. 활동사진



▲ 모장실 2차 안전 발의 준비 과정



▲ 모장실 2차 안전 발의 중 긴급회의



▲ 온라인 안전맵핑 제작 과정



▲ 준공식 '물내림제' 기념사진

제9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 안전지도 그리기 활동결과보고서

3. 활동 과정 및 앞으로의 방향성

3. 앞으로의 방향성

2021년 제 8회 안전한 학교 공모전에서 시작한 우리의 다짐은 계속됐다. 학교에서 받는 안전교육, 장애이해교육, 성교육, 인권교육의 배움과 실제 학교 모습의 거리를 꾸준히 좁혀나가고자 한다. 배움을 통해 한층 넓어진 시야로 학교를 바라보았다. 기존의 돌계단 같은 고질적인 문제부터 화장실 위치 적합성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존재했다. 다시 한 번 학교를 변화시킬 이유는 충분했다.

작년에 가결된 모장실 설치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위치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위치를 변경해 2차 안전을 발의했다. 모장실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을 위해 초청강의와 조별 그룹 토의를 기획했다. 다시 0부터 시작해 쌓아올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위치 변경에 호의적이지 않은 의견도 있었다. 이 또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구성원이 솔직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자유토크모임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그 결과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설득하면서 공동체의 전반적인 감수성을 맞출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이동약자 접근성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동아리 외 구성원과 함께 우리의 최종 목표인 ‘유니버설학교(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향해갔다. 이렇듯 학교 구성원 모두와 함께 모장실을 준공했다. 모장실은 안전한 학교의 첫 발자국이 되어 다음 걸음의 든든한 거름이 될 것이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의 완성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많은 소수자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감수성에 발맞춰 가야 한다. 공간 형성을 넘어 공간을 사용하는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학교로 나아갈 것이다.